

謹婚歌



[해제]

<근훈가>는 『강륜보감(綱倫寶鑑)』 권지일(卷之一)에 수록된 국한문 혼용체의 짧은 가사이자 전형적인 교훈 가사이다. 이 가사의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다. 다만 『강륜보감(綱倫寶鑑)』의 첫 장에 “全南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春儒生 金福千 留巖 辛丑年 七月十五日”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륜보감』이라는 책은 신축년에 전라도 나주군에서 유생 김복천이란 사람이 제작 혹은 소장했던 책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 작품은 일부일처제를 권장하여 조혼과 첩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근대 이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문의 법도와 사람의 어짐이며 어진 사람을 집안에 들여야만 더욱 번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품을 마무리 하였다.

[원문]

그뜻이 한가지라 執摯하여 相見흠은
 禮로써 恭敬하여 分別흠을 발킴이니
 男女有別 然後에 父와子가 親하고
 父子가 親한然後에 義道가 生하고
 義道가 生한然後에 禮道가 作成하고
 禮道가 作한然後에 萬物이 平安하리니
 無別하여 無義흠은 禽獸之道 안일년가
 婦을取하난 家에 三日을樂을 不舉흠은
 嗣親흠을 生覺흠이며 婚姻에 不賀흠은
 人之次序라 하니 承代흠이 萬世로다

二. 謹婚歌

謹婚하시 謹婚하시 男女가 謹婚하시
 夫婦난 人倫의 大綱이요 壽夭長短의 萌이니
 世俗의 男女가 嫁娶흠을 太蚤하여
 爲人父母 之道을 未知히서 有子하되
 教化흠이 不明하여 百姓이 多夭하니
 그런故로 古者난 二十嫁요 三十娶라
 早婚하며 少聘흠은 偷薄으로 教人이요
 妾媵이 無數흠은 淫亂으로 教人이며
 貴賤이 有等하니 一夫에 一婦흠은
 庶人에 職分이라 婚姻에 論財흠은
 夷虜之徒 輩니라 君子난 不入其鄉하며
 婚姻에 議論할것은 男女의 親族이
 各各 婿와婦의 德生을 擇하며
 家法如何을 살피고 富貴을 不慕하며
 相交흠에 財物로 禮을하지 아니하며
 婿賢이면 雖貧이나 逢時하면 富貴하고

不肖하면 雖富라도 失時하면 貧賤하니
不肖한 富貴조흐며 嬌賢한 貧賤시러할가
取婦흥을 조심하식 婦人난 家道을
盛하며 衰하나니 一時에 富貴을
苟慕하여 娶之하면 婦人의 行實흥이
富貴을 挾헛다하여 舅姑와 夫弟들을
輕忽하며 傲慢이하야 驕妬之性을 養性하면
異日에 患亂되니 無德富貴 무엇할가
婦賢하면 家昌하고 不賢하면 家亡이라
婦財로 致富하며 婦勢로 致貴하면
丈夫의 志氣라면 엇지 無愧하라
女息을 嫁할적에 吾家보다 勝하면
嫁女가 事人흥에 必欽하며 必戒하고
子婦을 取할적에 吾家보다 不勝하면
取婦가 舅姑섬김이 婦道을 必執하네
謹婚歌을 드러보고 嫁娶할제 조심하식

三.分別歌

分別하식 分別하식 男女을 分別하식
男女을 分別하면 禮義가 업시릿스

[현대역]

그 뜻이 한 가지라 집지(執摯)⁴⁶하여 상견(相見)함은
 예(禮)로써 공경(恭敬)하여 분별(分別)함을 밝힘이니
 남녀유별(男女有別) 연후(然後)에 부(父)와 자(子)가 친(親)하고
 부자(父子)가 친한 연후(然後)에 의도(義道)가 생겨나고
 의도(義道)가 생기고 난 연후에 예도(禮道)가 이루어지고
 예도(禮道)가 이루어진 연후에 만물(萬物)이 평안(平安)하리니
 무별(無別)⁴⁷하여 무의(無義)함은 금수지도(禽獸之道)⁴⁸ 아니겠는가
 부인을 취(取)하는 집에 삼일(三日)을 음악(樂)을 연주하지 않음은
 사친(嗣親)⁴⁹함을 생각(生覺)함이며 혼인(婚姻)에 축하하지 않음은
 인지차서(人之次序)⁵⁰라 하니 대를 이어나감이 만세(萬世)로다

二. 근혼가(謹婚歌)

근혼(謹婚)¹하세 근혼(謹婚)하세 남녀(男女)가 근혼(謹婚)하세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대강(大綱)²이요 수요장단(壽夭長短)³의 붕(崩)이니
 세속(世俗)의 남녀(男女)가 가취(嫁娶)⁴함을 태조(太蚤)⁵하여
 위인부모지도(爲人父母之道)⁶를 미지(未知)⁷해서 유자(有子)⁸하되
 교화(教化)⁹함이 불명(不明)¹⁰하여 백성(百姓)이 다요(多夭)¹¹하니
 그런 까닭으로 고자(古者)¹²는 이십가(二十嫁)요 삼십취(三十娶)라¹³
 조혼(早婚)¹⁴하며 소빙(少聘)¹⁵함은 투박(偷薄)¹⁶으로 교인(教人)이요
 첩잉(妾媵)이 무수(無數)함은 음란(淫亂)으로 교인(教人)이며
 귀천(貴賤)이 유등(有等)하니¹⁷ 일부(一夫)에 일부(一婦)함은¹⁸
 서인(庶人)의 직분(職分)이라 혼인(婚姻)에 논재(論財)¹⁹함은
 이로지도배(夷虜之徒輩)²⁰니라 군자(君子)는 불입기향(不入其鄉)²¹하며
 혼인(婚姻)에 의논(議論)할 것은 남녀(男女)의 친족(親族)이
 각각(各各) 서(婿)²²와 부(婦)²³의 덕생(德生)을 택(擇)하며
 가법여하(家法如何)²⁴를 살피고 부귀(富貴)을 불모(不慕)²⁵하며
 상호(相交)함에 재물(財物)로 예(禮)를 하지 아니하며
 서현(婿賢)이면²⁶ 추빈(錐貧)이나 봉시(逢時)²⁷하면 부귀(富貴)하고
 불초(不肖)²⁸하면 수부(雖富)²⁹라도 실시(失時)³⁰하면 빈천(貧賤)하니
 불초(不肖)한 부귀(富貴)는 줄으며 서현(婿賢)한 빈천(貧賤)은 싫어할까
 취부(取婦)³¹함을 조심하세 부인(婦人)은 가도(家道)³²를
 성(盛)하며 쇠(衰)하나니 일시(一時)에 부귀(富貴)를
 구모(苟慕)하여 취지(娶之)하면³³ 부인(婦人)의 행실(行實)함이
 부귀(富貴)를 험(挾)했다하여 구고(舅姑)³⁴와 부제(夫弟)³⁵들을
 경홀(輕忽)³⁶하며 오만(傲慢)하여 교구지성(驕妬之性)³⁷을 양성(養性)하면
 이일(異日)에 환란(患亂)되니 무덕부귀(無德富貴)³⁸ 무엇할까
 부현(婦賢)³⁹하면 가창(家昌)⁴⁰하고 불현(不賢)하면 가망(家亡)⁴¹이라

부재(婦財)42로 치부(致富)43하며 부세(婦勢)로 치귀(致貴)44하면
장부(丈夫)의 지기(志氣)라면 어찌 무괴(無愧)45하라
여식(女息)을 가(嫁)할 적에 오가(吾家)보다 승(勝)하면46
가여(嫁女)47가 사인(事人)48함에 필흥(必欽)49하며 필계(必戒)50하고
자부(子婦)51를 취(取)할 적에 오가(吾家)보다 불승(不勝)하면
취부(取婦)가 구고(舅姑) 섬김이 부도(婦道)52를 필집(必執)53하네
근혼가(謹婚歌)를 들어보고 가취(嫁娶)할 때 조심하세

삼(三). 분별가(分別歌)

분별(分別)1하세 분별(分別)하세 남녀(男女)를 분별하세
남녀를 분별하면 예의(禮義)2가 없습니까

[각주]

- 46) 집지(執摯) : 폐백을 가짐.
- 47) 무별(無別) : 분별이 없음.
- 48) 금수(禽獸) : 날짐승과 들짐승이라는 뜻으로, 무례하고 추잡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 1) 근혼(謹婚) : 혼인을 삼가다.
- 2) 대강(大綱) : 기본적인면서 중심이 되는 일.
- 3) 수요장단(壽夭長短) : 수요(壽夭)를 힘주어 이르는 말. 수요(壽夭)란 장수(長壽)와 단명(短命)을 뜻함.
- 4) 가취(嫁娶) :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 5) 태조(太蚤) : 매우 일찍.
- 6) 위인부모지도(爲人父母之道) : 부모가 되는 길.
- 7) 미지(未知) : 알지 못함.
- 8) 유자(有子) : 자식이 있음.
- 49) 사친(嗣親) : 아버이를 계승하는 것.
- 50) 인지차서(人之次序) : 사람의 대가 바뀌는 것.
- 9) 교화(教化) :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 10) 불명(不明) : 분명하지 않음.
- 11) 다요(多夭) : 단명하는 사람이 많음.
- 12) 고자(古者) : 선조들.
- 13) 이십가(二十嫁)요 삼십취(三十娶)라 : 시집가는 이가 스물이요 장가드는 이가 삼십이라.
- 14) 조혼(早婚) : 일반적인 결혼 적령기보다 일찍 결혼함.
- 15) 소빙(少聘) : 젊은 나이에 장가들.
- 16) 투박(偷薄) : 박정하고 불성실함.
- 17) 귀천(貴賤)이 유등(有等)하니 : 귀하고 천함은 동등하니.
- 18) 일부(一夫)에 일부(一婦)함은 : 한 남편과 한 아내. 곧 한 부부를 뜻함.
- 19) 논재(論財) : 재물을 논함.
- 20) 이로지도배(夷虜之徒輩) : 오랑캐의 무리.
- 21) 불입기향(不入其鄉) : 그 고향에 들지 않음.
- 22) 서(婿) : 사위.
- 23) 부(婦) : 며느리.
- 24) 가법여하(家法如何) : 가문의 법도가 어떠한가.
- 25) 불모(不慕) : 탐하지 않음.
- 26) 서현(婿賢)이면 : 사위가 어질면.
- 27) 봉시(逢時) : 좋은 때를 만남.
- 28) 불초(不肖) : 못나고 어리석음.
- 29) 수부(雖富) : 비록 부유하더라도.
- 30) 실시(失時) : 때를 잃으면.
- 31) 취부(取婦) : 아내를 맞이함.

32) 가도(家道) : 집안 살림을 하여 가는 형편.

33) 구모(苟慕)하여 취지(娶之)하면 : 진실로 탐하여 그것을 취하면.

34) 구고(舅姑) : 시부모.

35) 부제(夫弟) : 남편의 아우.

36) 경홀(輕忽) : 가벼이 여겨 소홀함.

37) 교구지성(驕妬之性) : 교만하고 추한 성품.

38) 무덕부귀(無德富貴) : 부귀하나 덕이 없음.

39) 부현(婦賢) : 며느리가 어질.

40) 가창(家昌) : 가문이 창성함.

41) 가망(家亡) : 가문이 망함.

42) 부재(婦財) : 며느리의 재물.

43) 치부(致富) :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44) 치귀(致貴) : 높은 지위에 이름.

45) 무괴(無愧) : 부끄러움이 없음.

46) 여식(女息)을 가(嫁)할 적에 오가(吾家)보다 승(勝)하면 : 딸을 시집보낼 적에 우리 집안보다 훌륭하면.

1) 분별(分別) : ①서로 구별(區別)을 지어 가르는 것 ②사물(事物)을 종류(種類)에 따라 나누는 것 ③세상(世上) 물정(物情)에 대(對)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判斷).

2) 예의(禮義) :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47) 가여(嫁女) : 출가한 여자.

48) 사인(事人) : 어른은 모심.

49) 필흠(必欽) : 반드시 공경함.

50) 필계(必戒) : 반드시 삼감.

51) 자부(子婦) : 며느리.

52) 부도(婦道) : 며느리의 도리.

53) 필집(必執) : 반드시 지킴.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